

# 사회

## 기아차 화염병 투척·순천지원 방화 등 수사 '담보'

# 목격자·CCTV 없으면 범인 못잡나

최근 '기아차 운반차량 화염병 투척' '광주지법 순천지원 방화' '광주 수돗물 오염사태'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경찰 수사는 담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경찰은 이들 사건·사고 현장이 모두 외진데다 목격자가 없는 시간대에 벌어져 수사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그동안 경찰 조사가 대부분 폐쇄회로(CC)TV에 의존하면서 수사력에 한계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분석했지만 용의자를 찾지 못했고, 화물연대 노조원들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지만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 목격자를 찾는다며 제보전단 1000매를 배포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방화**= '사법부에 대한 테러'로 간주하고 순천경찰이 수사중인 광주지법 순천지원 출입문 방화사건도 오리무중이다. 경찰은 ▲용의자가 불을 붙이고 달아나는 모습 ▲주유소에서 휘발유 9.8ℓ (2만 원 상당)를 구매하는 장면 ▲인근 편의점에서 신문을 사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3개를 확보했지만 영상이 뚜렷하지 못해 범인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 영상과 범점 CCTV 영상을 비교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광주 수돗물 오염**= 광주 용연정수장 약품탱크 누출방지 공사중에 발생한 '수돗물 오염사태'도 광주동부경찰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된 '약품 트레이너 벨브'를 건드린 사람이 역시 누구인지 뚜렷하게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용연정수장 직원들과 당시 공사 인부 등 6~7명을 최근까지 불러 조사했으나 '모른다'는 입장만 거듭 확인한 상태다.

경찰은 "CCTV가 없는 관계로 관련 증거가 확보 되지 않고 있다"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용연정수장 측과 현장 인부들의 주장만 이어질 뿐 진실을 가려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수학여행 버스 기사 음주 측정** 광주 관산경찰이 지난 5일 광주시 관산구 신창초등학교 앞에서 여수로 체험학습을 떠나는 학생들을 태우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관광버스 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 측정을 하고 있다.

◇**기아차 운반차량 화염병 투척**= 장성경찰이 수사중인 '기아차 화염병 투척' 사건은 지난달 21일 밤 10시10분께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출고된 신차 8대를 싣고 장성을 호남고속도로 상산분기점을 지나던 차량 탑승용 트레일러에 화염병 3개가 날아든 사건이다.

경찰은 당시 "복면을 한 남성 3명이 주변 야산과 들밭으로 도주했다"는 운전자 나모(42)씨의 진술에 따라 용의자들의 신원을 파악하는데 주력했다. 특히 장소가 고속도로 한복판인데다 화물연대 카가이러버회 노조원들과 비노조원인 나씨 등이 갈등을 빚어온 점 등으로 미뤄 계획된 범행일 가능성이 높기로 판단했다.

하지만 주요 지점의 CCTV 영상들

## “교생실습 ‘쇼’ 발언은 명예훼손”

김연아, 황상민 고소



고 '쇼를 했다'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한 말이다"고 지적 탄을 날렸다.

황 교수는 "(김연아가)수업을 안들었다고 해도 학점을 인정해주고, 수업을 안 들어도 졸업을 시켜주는 그런 학교인가"라며 김연아가 재학 중인 고려대의 학사 행정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김연아 측은 황 교수의 발언 중 '김연아의 교생실습은 쇼'라는 대목을 문제 삼고 있다. 황 교수가 당시 라디오에서 말하려고 했던 의도가 다른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표현이 허위인 문제라는 것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피겨여왕’ 김연아(사진)가 연세대 황상민(심리학과)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6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김연아 측은 지난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황 교수는 지난해 24일 CBS 라디오 '김미화의 여러분'에 출연해 김연아의 교생실습을 거론하며 다소 민감한 발언을 이어갔다.

사회자인 김미화가 "김연아 선수가 바쁜데도 이렇게 성실하게(교생실습을)하신 것은 참 좋은 학생인 것 같다"고 운을 떼자 황 교수는 "단어를 잘못 쓰신 것 같다. 성실이라 함은 정해진 것을 꾸준히 잘 실행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교생실습을 성실히 한 것은 아니다. '교생실습을 한 번 건다'



## 노인상대 무면허 치과 시술 수익 챙겨

남부경찰, 50대 검거

무면허 치과 치료 시술로 수익원을 쟁긴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남부경찰은 6일 치과 의사 면허 없이 사무실을 차려놓고 노인들을 상대로 치료 의료 행위를 한 유모(51)씨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광주시 관산구 우산동에 치과 기공소를 차려놓고 지난 2010년 7월께 최고(68)씨에게

크라운 치료(충치 등 상한 치아에 금이나 은 등을 덧씌우는 치료법)를 해주고 8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지난 2년간 노인 등 91명을 상대로 틀니 등을 시술해주고 5만~300만원을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모두 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유씨는 광주 지역 한 치과기공소에서 20여년 동안 근무하면서 배운 기술로 '병원보다 저렴하게 치료해 주겠다'고 속여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광주특기회 부근서 40대 운전자 들연사

지난 5일 밤 8시55분께 장성군 남면 광주특기회 요양계산소 부근에서 정모(48) 등 91명을 상대로 틀니 등을 시술해주고 5만~300만원을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모두 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씨의 사망 원인이 교통사고에 의한 것인지, 심근경색 등 질병에 의한 것인지를 밝히기 위해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yongho@

## “의료과실 증명 안되면 의사 책임없어”

광주지법

광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길성)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사(예비직 죄명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모(6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우측 고관절 수술부위와 사망의 원인이 된 과다출혈 발생 부위가 좌측 장골동맥으로 다른 점 등으로 미뤄 수술로 인해 피해자에게 광범위한 만성염증과 혈관염 등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곤란하다"고 판시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의 혈관이 약하다는 것을 알고도 2차 수술을 시행한 것을 의료과실로 평가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의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남지역 한 병원 의사인 김씨는 지난 2009년 4월7일 A씨를 대상으로 우측 인공관절 삽입술을 시행하고 같은 해 5월 8일 2차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과다출혈이 발생해 전담대원 원으로 이송했으나 4일 후 좌측 장골동맥 손상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A씨가 사망했다.

/서부취재본부=김병민기자 dss6116@

황구령이 도심 출현 주민 '회들썩' ... '별종 위기 야생동물 1급'인 황구령이가 도심 아파트에 출현했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가 포획, 인근 야산에 방사.

○6일 목포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목포시 상동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뱀이 나타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길이 2m의 황구령이를 포획해 인근 야산에 풀어줬다는 것.

○소방서 관계자는 "구령이는 생김새 때문에 공포의 대상으로 취급받지만, 사람에게 큰 해를 끼치지 않는 만큼 집 주변에 나타났을 때 놀라지 말고 즉시 11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

## 신가동서 만취 운전 승용차 오토바이 추돌

# 가해자-피해자 뒤바뀌어 논란

관산경찰, 50일 지나 현장 검증 '의혹'

만취 상태의 승용차 운전자가 앞서 가던 오토바이를 추돌한 사고와 관련, 애초 가해자로 지목됐던 운전자가 경찰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로 바뀌면서 논란이다.

더욱이 사고 발생 50여일 후 현장 검증을 거쳐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뀐 데다 승용차 운전자의 아버지가 현지 경찰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의혹이 일고 있다.

6일 관산경찰에 따르면 지난 4월 7일 밤 9시30분께 관산구 신가동 GS 신항점 사거리에서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던 위모(28)씨가 앞에서 달리던 조모(16·고1)군의 오토바이를 추돌했다.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던 수완지구대 경찰관은 위씨가 조군의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음주측정을 실시, 위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33%인 것을 적발했다.

하지만 사고 발생 50여일이 경과된 지난달 27일 교통사고 조사계의 현장 검증 결과 오토바이 운전자 조군의 과실이 판정됐다. 상황이 달라지자 오토바이 운전자를 한 학생의 아버지 조모씨는 사고 운전자인 위씨의 아버지가 현지 경찰 간부이다보니 현장에 출동했던 지구대의 초동조치부터 석연치 않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조씨는 "지구대의 초동 수사 과정

에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고등학교 1학년생을 보호자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고 긴급 구조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더구나 경찰 조사가 의도적으로 지연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씨는 "차선을 확실하게 변경한 이후 뒤따르던 차량이 추돌했는데, 일방적인 끼어들기로 판정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산경찰 관계자는 "오토바이가 우회전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던 과정에 뒤따르던 산타페 차량이 추돌한 경우로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책임이 크다"며 "오토바이를 운전했던 조군은 지구대에서는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거짓 진술까지 했었다"고 밝혔다. 한편 위씨의 아버지는 여수경찰서 관내 파출소에 경위로 근무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여성가족부 인정**

2012년도 **“가정폭력상담원”** 교육

〈광주광역시 북구청 승인 교육기관 : 08-1〉

- **교육일시**(총100시간)
  - ▶ 2012년 7월 2일(월) ~ 8월 3일(금) 매주 월, 화, 목, 금 오후 6:00~
- **접수기간** : 2012년 6월 15일(금)까지
- **모집대상** <각 항에서 1개만 해당됨 가능>
  -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 ③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 가정폭력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자
  - ④ 이주 노동자 및 외국인 관련 단체 및 시설(외국인보호)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⑤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장애인보호)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수강료** : 22만원
  - ※ 계좌 : 063-107-581656(광주은행) 예금주 : 광신교육원(가폭)
  - ※ 수강료를 환불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규정(법 제15조, 규칙 제16조)에 따라 환불조치하며, 2회 이상 수강이후 취소할 경우 환불이 불가합니다.
  - ※ 교육생이 30명이 이상 모집되어야 개강이 가능하며, 미실시시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 **교육특전 및 혜택**
  - ① 교육훈련 교과목 중 이수하여야 할 이수율 총 시간의 90% 이상을 수료한 자에 대해서는 수료증과 가정폭력상담원 자격증 카드를 발급합니다.(출석시간 90% 미달자는 제적처리함.)
  - ② 본원의 가정폭력상담원 과정자 중 **성폭력상담원 자격 취득 희망자** 별도비용과 추가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 ① 신청서(소정양식)
  - ②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③ 신분증 사본
  - ④ 사진 2매
  - ⑤ 경력증명서(해당자)
  - ⑥ 자격증 사본(해당자)

**광신대학교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

**쉽게 치료되지 않는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

**고질적인 콧병 수술없이 다스린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

일반적으로 알레르기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는데 이러한 알레르기 비염은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만성화될 경우 축농증, 비염(물혹), 중이염, 인두염, 기관지 천식 등 합병증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알레르기성 비염 등 각종 고 관련 질환들은 학습에 치명적인 지장을 주고, 성장기 아동의 경우 성장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성적합성이나 성격형성에 악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성장발육에도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효과적인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원인적인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대개 만성화되거나 축농증으로 진전되어 평생 호흡곤란과 두통, 집중력 저하 등으로 고생하게 되는데, 특히 어린이나 수험생의 경우 기억력이나 집중력 저하로 인해 학습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원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한다.

**인체면역력 강화로 알레르기성 고질병을 치료한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고 눈이나 인후두가 가렵거나 냄새를 잘 맡을 수 없게 된다. 또 눈물이 흐르거나 머리가 아파오고 피로해지는 등 다양한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 코가 근질거리면서 맑은 콧물이 줄줄 흐르고 재채기를 발작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이미 만성 알레르기 비염이 심각해진 것이며 결국 축농증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증세가 심해지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타나며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감소되어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이기도 한다. 또 위장병이나 만성두통으로 발전하면서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유근피 등 20여 가지로 만든 한약 고질적인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에 좋은 효과**

콧병치료의 시작은 먼저 환자의 몸을 건강하게 회복시키고 체질을 개선시켜 막힌 기운을 뚫는 데 중점을 두는데, 이환용 원장도 이런 과정을 통해 10여 년간 비염을 중점적으로 치료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약을 만들어 효과적으로 비염환자들을 치료해주고 있다.

축농증, 알레르기성 비염, 비후성 비염 등 고질적인 코질환에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것은 유근피이다. 이 유근피에 실구자, 신이화, 수세미 등 면역력 증강과 호흡기가 튼튼해지는 20여 가지의 약재가 가미된 평강한의원 한약은 작은 한약으로 만들어져 어린이가 복용하기에도 수월하며, 고질적인 비염이나 축농증에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평강한의원에서 치료하는 약액은 주재료인 참느릅나무 껍질인 유근피는 예로부터 민간요법에서 콧병에 잘 듣는다고 하여 일명 '코나무'로 불리던 것으로, 콧병뿐 아니라 기침을 멈추게 하고 호흡기를 깨끗이 정화시켜주는 작용을 하며 염증이 위장병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 평강한의원에서는 참느릅나무 뿌리 껍질인 유근피로 만든 한약을 환자들에게 처방한 결과 알레르기성 비염과 축농증을 비롯한 각종 코질환에 좋은 치료성과를 거두고 있다. 평강한의원의 이환용 박사는 자연을 이용하여 어떤 병이든 치료효과를 치료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  
(한의학 박사, 경희대 한의과대학 외래교수)  
**02-3481-1656**  
**www.dr-lee.co.kr**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공공심의회 제090204-중-4738호